

사회

장맛비 속 손수레 할머니 도와준 시내버스 기사 아름다운 선행

광주에 장맛비가 쏟아진 지난 달 30일 오후. 남구 덕남정류장을 출발해 시내 쪽으로 향하던 라정 버스 금남59번 1605호 버스가 남구청 앞 관도 1차선 고갯길에서 멈춰섰다. 승객들은 정류장도 아닌 곳에서 버스가 멈춘 것을 의아해하며 "무슨 일이나"며 기사에게 물었다. 승객들은 이내 반대편 차선에서 폐지 수레를 발견했다. 70대 할머니가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지는 장대비를 맞으며 수레를 끌고 있었다. 할머니의 키보다 큰 폐지 수레는 좁은 언덕길을 오르는데는 못하고 있었다.

순간 버스기사는 승객 10여명에게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양해를 구한 뒤 우산도 없이 할머니에게 뛰어가 수레를 밀기 시작했다. 그레도 할머니가 힘들어하자 대신 수레를 끌기 시작했다. 그가 비를 맞으며 오른 경사진 길은 무려 150여m에 달했다. 버

스기사가 할머니를 돕는 5분 동안 승객들의 눈에는 행복이 넘쳐 보였다.

이내 승을 허벅지거리며 다시 버스에 오른 기사는 "죄송합니다. 지체됐네요"라고 사과했다. 한 승객은 조용히 기사에게 손수레를 내밀었다. 도움을 받았던 할머니는 언덕 꼭대기에서 버스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고 있었다. 이 사연은 당 시 버스에 탔던 한 대학생이 광주 시청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지게 됐다. 이 대학생은 "기회가 된다면 가족 모두가 그 기사님이 운전하는 버스를 타보고 싶다고 적었다."

비를 맞으며 할머니와 함께 수레를 끌었던 버스기사 최석준(45)씨는 "할머니가 언덕길을 오르지 못하고 있어 그제 힘을 보탠 것 뿐"이라며 "누구라도 그랬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남구청 앞 고갯길서 150여m 밀고 끌어줘



노후 레미콘 트럭 '시한폭탄'

사용연한 규정없고 싼 값에 10년 이상된 차량 구입 유행

봉선동 참사 원인 '브레이크 성능 저하'

광주·전남지역 곳곳에 출고된 지 최고 20년에 이르는 노후 레미콘 트럭이 운행되고 있어 대형사고 위험이 크다. 차체 무게에 레미콘까지 적재할 경우 25t이 넘는 이들 차량이 낮은 채 운행되고 있어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5월19일 광주시 남구 봉선동 주택가에서 4명이 사망한 레미콘 트럭 참사(본보 5월21·24일자 6면)와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차량 노후화에 따른 제동장치 성능 저하"로 최종 결론 지었다.

1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부분원이 "15년된 트럭이 사고 당시 상당량의 레미콘을 실은 채 내리막 도로를 주행중 브레이크를 자주 사용하면서 브레이크 공기압력이 저하돼 제동 성능이 떨어져 트럭이 밀렸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식 결과를 보내왔다.

15년이나 된 사고차량이 레미콘 13t을 적재한 채 내리막길을 달리다가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남부경찰은 공기압축식 제동장치를 사용하는 레미콘 트럭의 경우 10년 이상 노후 차량은 신차에 비해 브레이크 공기 저장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사고위험이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95%가 '지입차'로 운행되

고 차량을 찾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에는 2000만~3000만원 수준의 15년 이상된 95~96년식 레미콘 트럭을 찾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운반횟수에 따라 일당을 지급받는 일명 '탕튀기' 계약을 맺기 때문에 노후차량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난폭·과속 운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지난달 30일 광주시 남구 한 레미콘업체에서 만난 기사 "20년 된 중

고 트럭도 상당수 운행되고 있다. 사고 위험 부담은 있지만 일감이 없을 때 수리를 맡겨서 문제없이 타고다니는 사람이 대다수"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감이 있을 때 많이 뛰어 야 하기 때문에 적게는 2만3000원에서 많게는 3만6000원을 받고, 무리하게 주행을 할 수밖에 없다. 대형트럭 운전사들도 비슷하다"고 고소했다.

한편 광주·전남에는 모두 1900여대의 레미콘 트럭이 등록돼 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지난달 30일 광주시 동구 소재동 인근을 운행하던 레미콘 트럭의 모습. 이 차량은 사용 연수가 상당한 듯 곳곳에서 부품이 부식된 흔적이 발견됐다.

나원침 (8599) 김중두



미혼모 아파트 투신 숨져

지난 30일 새벽 1시30분께 광주시 동구 모 아파트 15층 계단 창문에서 A(여·21)씨가 1층 경비실 옥상으로 뛰어 내려 그자리에서 숨졌다.

1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두 살 연하 남자 친구의 입대로 3개월 전 홀로 아기를 낳은 A씨는 자살 직전 친동생(여·17)에게 전화를 해 "아기를 키우기가 힘들다. 살고싶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차량 50여대 타이어 펑크 40대 검거

도로에 주차된 차량 50여대의 타이어를 펑크낸 40대가 검거됐다. 광주광산경찰은 1일 도로에 주차된 차량 50여대의 타이어에 펑크를 낸 혐의(재물손괴)로 양모(41)씨를 입건, 조사하고 있다.

양씨는 지난달 28일 밤 10시경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광산구 우산

동, 월곡동, 운남동 일대를 걸어 다니며 등산용 칼로 차량 50여대의 타이어에 펑크를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서 양씨는 자신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차량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승철기자 srchoi@kwangju.co.kr

장애인 행세 교사 기소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일권)는 1일 "감사원이 지난 2월 정신지체 장애인인 A(27)씨가 교사로 재직중인 사실을 적발해 수사의뢰를 해오며 따라 관련 병원 진료기록, 브로커,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

행방해 혐의로 최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결과 A씨는 브로커 B씨를 통해 지난 2005년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 정신과에서 심리검사와 지능검사를 받으면서 엉터리로 답변해 정신지체 장애인임을 받은 뒤 경쟁률이 낮은 지난 2009년 교사임용시험 장애인 분야에 합격, 광주 모 중학교 윤리 교사로 임용됐다가 취소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박주선·유태명 항소

"직접 증거없다" 주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과 직위상실형인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은 무소속 박주선(63·광주시 동구) 의원과 유태명(68) 광주 동구청장 등 두 유죄 피고인 8명이 최근 항소했다.

1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가 제출되거나 일선 선거인단 모집 동책 조모(61)씨와 차모(53)씨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들은 공소 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또 이번 사건으로 구속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박 의원의 보좌관 이모(46)씨와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은 민주통합당 전 정책실장 김모(50)씨, 동구청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김모(48)씨도 항소했다.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은 동구의회 부의장 조모(65)씨와 법정구속된 무버 일선 선거인단 모집 동책 조모(61)씨와 차모(53)씨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닥터 헬기' 대체 운항 재개

보건복지부, 기기 오작동 조사 착수

지난 28일 오전 신안군 장산도에서 기기 오작동으로 멈춰서 환자 이송에 실패한(본보 6월 29일자 6면) 응급의료 전용 헬기(이하 닥터 헬기)의 운항이 2일부터 재개된다.

1일 전남도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기기 오작동을 일으킨 목포 한국병원 닥터 헬기를 고장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보건복지부가 관리중인 닥터 헬기로 대체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닥터 헬기는 도서지역 응급환자 처치 및 이송을 위해 목포 한국병원, 인천 길

병원 등 2곳에 분산배치돼 있으며, 보건복지부도 1대를 보관중이다"며 "기기 오작동 원인은 지금도 조사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 한국병원 닥터 헬기는 지난달 28일 오전 10시15분께 경운기 사고로 중상을 입은 김모(87)씨의 응급 처치 및 이송을 위해 신안군 장산도에 출동했으나 원인을 알 수 없는 경보음으로 멈춰섰다.

결국 1시간 가량 늦게 소방헬기로 이송된 김씨가 과다출혈 등으로 숨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같은 집 세들어 사는 여성에 강도행각

○~50대 남자가 같은 집에 세들어 혼자 사는 30대 여성 방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으려다 경찰에 걸렸다.

○~1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특별한 직업이 없는 은모(57)씨는 지난달 30일 새벽 4시 35분께 자신이 세들어 사는 주택의 2층 세입자 A(여·34)씨 방에 들어가 돈을 빼앗으려다가 저항하는 A씨의 팔을 흉기로 찌르고 물러섬은 후 달아났다

○~경찰은 "강도가 1층에 사는 남자와 비슷하게 생겼다"는 A씨의 말을 듣고 집에 숨어 있던 은씨를 검거, 범행 일체를 자백 받고 구속영장을 신청.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경찰청지정 운전면허 시험장

트레일러 대형

주영진자동차운전전문학원

"공원같이 아늑한 학원전경"

트레일러 대형 1,2종보통 2종소형(오토바이)

휴일에도 접수·교육 합니다.

운전면허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광주 최대의 규모 **깨끗한 환경** **친절한 강사진**

학원에서 **교육한 차량**으로 주5회 장내·도로 자체시험 실시

- 새벽반, 야간반, 주말반 운영
- 2012년 7월 부터 수강료에 부가세 과세확정
- 교재무료 배부
- 11월부터 도로주행 시험강화로 수강료인상 예정
- 셔틀버스 운행

주영진자동차운전전문학원

위치: 신가동 사거리 분향교회 옆, 중앙아동병원 앞 ☎062-951-5100